

교회, 돈을 어떻게 쓸까?

교회와 사회적 기업

☞ 이윤재 (송실대 경제학과 교수)

1. 왜 교회는 복지 지출을 늘려야 하는가?

약자를 돌보는 것은 교회의 기본적인 사명 중 하나이다. 성경은 끊임없이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신 10:17-19)를 돌볼 것을 강조하는데, 이들은 당시의 대표적인 경제적 약자들이었다. 또한 성경은 기본적으로 경제 공동체 정신을 강조한다. 즉 개인보다는 가족(지파) 단위의 민족 경제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다.¹⁾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 여러 모양으로 주변의 경제적 약자를 돌보는 교회의 구체 프로그램으로 계승되고 있다.

구약성경은 거듭 경제적 약자를 돌볼 것을 강조하고 있다.

신 12:28~29은 제8차년도의 십일조를 지역 공동체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 동일한 명령이 신 14:29과 26:12에서도 반복된다. 십일조는 본래 기업(oo)이 없는 웨이인의 생계와 생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해 도입된 것이었는데, 여기에 인약 공동체 내의 가난한 자를 돌보는 복지적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이러한 말씀은 오늘날의 교회가 경제적 약자에 관심을 갖고 복지 지출에 적극적으로 나아 함을 시사해 준다.

신 15:11에서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고... (중략) 네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은 가난한 자가 이 땅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면서 빈곤 해결을 위한 노력과 복지 문제가 끊이지 않을 것을 암시하고 있다. 즉, 가난한 자들이 우리의 이웃임을 잊지 말고 적극적으로 돌보라는 것이다.

2. 사회적 기업: 교회의 무슨 상관이 있나?

오늘날의 한국교회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직접적인 재정적·물질적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시혜적인 복지는 대상자들에게 의존적인 상황을 길러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수혜 받는 계층의 자존감을 살려주면서 자조적인 생활 기반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즉, 물고기를 직접 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예를 들면, 구제금이나 현물을 직접 전달하기보다는 창업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문적

1) 이 점은 오늘날의 개인 단위 경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오늘날 현대경제학은 개인(소비자 및 기업의 효율성 극대화를 강조하고, 개인이 효용극대화(소비자의 효용극대화) 및 기업의 이윤극대화가 곧 사회적인 효용극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오늘날 신자유주의경제학은 개인이나 개별 기업의 이익극대화에 기초한 개별경제(필자는 Microeconomy로 명명함)이다. 반면에 성경은 철저하게 공동체(필자는 Weconomy라 명명함)를 강조하고 있다. 가난한 입성 후에 토지도 개인에게 분배된 것이 아니라, 지파를 중심으로 가족 단위로 배분되었다.



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며, 오늘날의 경제 상황은 구약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다기(複雜多岐)하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속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성도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처럼 사회적 공공성과 기업의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데 적합한 것이 바로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이다.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여 경제적으로 취약한 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면 자립적인 복지가 가능케 된다. 경제적 약자들은 대개의 경우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이들 중 상당수는 고질적인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거나 지체장애, 또는 알코올 및 마약중독 등의 문제로 정상적인 취업이 힘든 사람들이다. 따라서 소득 수준이 낮아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정부나 교회 및 NPO(비영리 조직) 등의 복지 프로그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해줄 수 있는 기업을 만드자는 것이 사회적 기업의 기본 취지 중 하나이다. 사회적 기업은 정상적인 노동시장에서는 흡수되기 힘든 이들을 고용함으로써 복지 재원도 줄이고 그들의 경제적인 자립도 돕는 혁신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²⁾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7월 1일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이래 사회적 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정부의 인정을 필요로 하는 정부주도형 사회적 기업이며, 2011년 말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주관 정부인증 사회적 기업은 644개, 각 지자체 주관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은 1,398개가 활동 중에 있다. 지역적으로는 서울 지역에 153개(23.7%), 경기 지역에 113개(17.5%)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사회적 기업의 성공은 지속적인 경영이 관건이다. 즉, 고용을 유지하고 최소한의 운영에 필요한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사회적 기업도 일반 기업 못지않은 혁신을 요구한다.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므로 어떤 면에서는 더 적극적인 혁신—이를 사회적 혁신(social entrepreneurship)—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단체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협회 및 민간 비영리조직(NGO, NPO 등)이 있다. 이제 교회도 사회적 기업에 관심과 지원을 쏟을 때이다. 그 이유는 사회적 기업과 교회가 이웃 사랑이라는 기본적인 비전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교회가 물질 등으로 후원하는 것도 물론 의미 있는 일이지만, 자립이 가능한 계층에게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은 더 바람직하고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교회는 다양한 재능을 지닌 전문 인력 자원이 풍부한 곳이며 이웃 사랑과 봉사 정신으로 무장된 비영리 조직이기에 사회적 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이 많다.

아직은 교회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종합적인 지원 대책도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미 일부 교회가 주도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고 육성하여 성공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새터민(탈북자들)을 고용하여 밥스를 제조하고 있는 “메자니아이팩”이다. 메자니아이팩은 2008년 12월에 자본금 5,000만 원으로 설립하여 2009년 5월에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았으며, 현재 총 고용인원 40명 중 22명이 새터민(2010년 2월 기준)이며 자본금 5억 원의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메자니아이팩은 탈북자의 자립을 위해 “높은뜻 승의교회”(설립 당시 김동호 목사)에서 동교회의 “열매나눔재단”을 통해 세운 기업이다. 매달 5천만 원 이상의 적자가 나지만 재정적인 지원을 멈추지 않았으며, 나중에는 외부 지원(노동부, 통일부 및 SK그룹)을 받아 성공할 수 있었다. 이것은 교회가 지원과 협력의 중심에서 교회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 인프라 자본을 활용하여 사회적 기업을 성공시킨 대표적인 예이다. 높은뜻 승의교회는 구약성경에서 강조

2) 사회적 기업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자세한 것은 이윤채 외, 『나눔과 상생의 경제: 사회적기업』, (2012) 참조할 것.

하고 있는 나그네를 보호하라는 명령을 사회적 기업을 통하여 성공리에 수행한 셈이다. 사회적 기업은 수익성 진환기까지의 초기 운영자금과 경영 컨설팅을 필요로 한다. 교회가 이러한 초기 운영자금과 경영 컨설팅을 지원한다면 사회적 기업의 자립 및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교회가 장학재단을 만들어 장학생을 지원하는 것처럼 별도의 비영리재단(일례로 높은뜻 승의교회의 열매나눔재단)을 만들어 사회적 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준다면 가능할 것이다. 열매나눔재단을 통하여 장엄된 사회적 기업은 메자니아이팩뿐만이 아니다. 메자니아코원, 고마운 손, 블리스&블레스, 고마운 사람들 등 57개에 이른다.



현 시점에서 교회는 좀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구체사업의 외연을 확대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과 연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것 역시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이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선교도 이루어질 것이다. 교회가 실질적으로 많은 구체활동을 벌이고 있음에도 과소평가 받고 있고, 심지어 반 기독교적 정서까지 확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방식을 혁신해보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사회적 기업은 그 중 하나이다. 그러나 기업 경영은 전문적인 영역이며 진적으로 기업 경영에 헌신해야 한다. 또 교회와 기업은 그 본질이 다르고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하는 부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윤채 1991년 이후 지금까지 승실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현재 승실대교 기해자정이다. 승실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경제학박사이다. 현재 (사)기독교세계관학술공동체 회원이며 기독교학문연구회 경제/경영분과 위원장 역임한 바 있다. 주요 저서로는 『성경속의 경제학』(2004), 『사회적 기업 경제』(2010), 『사』와 함께 하는 거시경제학』(2011), 『나눔과 상생의 경제: 사회적기업』(2012) 등이 있다.